

영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선임연구원(khj785@kdb.co.kr)

- I. 영국 경제 현황
- II.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주요 내용
- III.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 균형발전전략
- IV. 시사점

영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은 2.5조 파운드로 세계 6위의 경제규모이며 세계적인 금융 선도국가이나 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경제성장이 부진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이며 고용률은 2021년 초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런던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건강기대수명 등 보건 지표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레벨링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 성장을 통한 생산성·임금·일자리와 생활 수준 증진' 등 4대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레벨링업'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펀드로서 '레벨링업 펀드'는 2021~2025년간 48억 파운드를 주로 지역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 외에 주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타운즈 펀드', 브렉시트 이후 EU 구조펀드를 대체할 '영국 번영공유 펀드', 소멸위기에 처한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매입 가능한 '지역사회 소유권 펀드' 등을 실행 중이다.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은 가장 많은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선정된 지역이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비컨헤드에서 세프턴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 차세대 헬스케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볼튼의 신규 의료시설 건설, 기술·교육·고용기회 개선과 디지털·문화 생태계 강화를 위한 워링턴의 디지털 기업 허브와 첨단 건설 훈련 센터 건설, 높은 잠재력을 가진 클러스터 성장 촉진을 위한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신규 혁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블랙번 위드 다윈은 도심지 마스터 플랜을, 북서부 전역은 위기에 처한 지역자산의 새로운 장소로의 재탄생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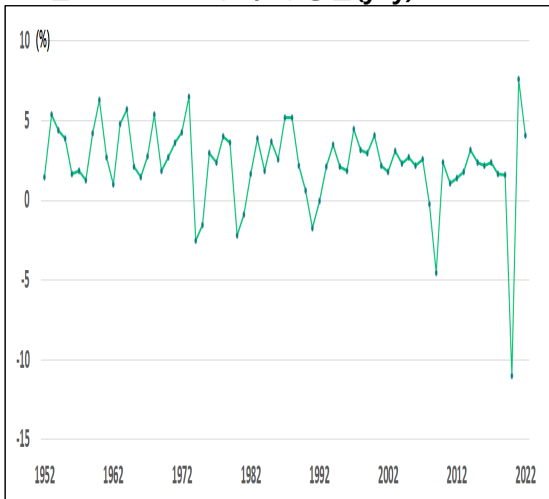
영국처럼 한국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취약점과 수요 등을 고려한 우선 투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교통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의료인프라와 생명공학지원 강화로 건강한 노동인구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강화, 몰입형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상을 추구하고 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영국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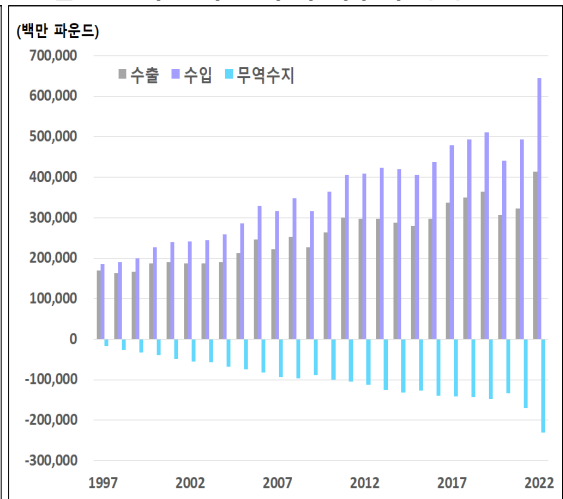
- 영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은 2.5조 파운드로 세계 6위 규모이며 세계적인 금융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증가
 - 운송·창고 및 통신업, 정부 및 기타 서비스업의 성장, 건설업의 성장, 가계 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2022년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
 - 영국에서 운송·창고 및 통신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8% 성장
 - 수출·수입 모두 2022년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폭이 더 커 무역수지 적자 확대
 - 주요 수출 품목은 귀금속, 원유, 기계 발전기, 의약품, 자동차, 주요 수입 품목은 가스, 원유, 의약품, 정유 등이며, 에너지 관련 수·출입 모두 증가
 -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환시장과 장외파생상품시장이 있는 국제 금융 중심지이나 브렉시트(2021년 1월 발효)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 금융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 유지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증가
 - IMF('23.10월)는 영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 0.5%, 2024년 0.6%로 낮게 전망

<그림 1> 경제 성장률(yoy)



자료 :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그림 2> 수출·수입과 무역수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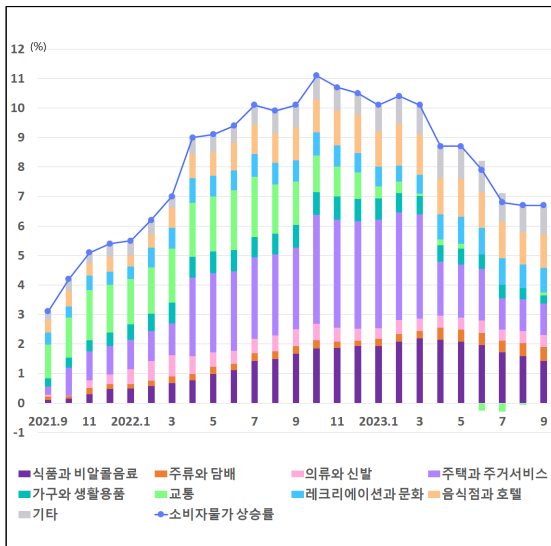


자료 : ONS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로 최고¹⁾ 수준을 기록했으며 고용률은 2021년 초부터 증가세이나 코로나 발생 이전 보다는 낮은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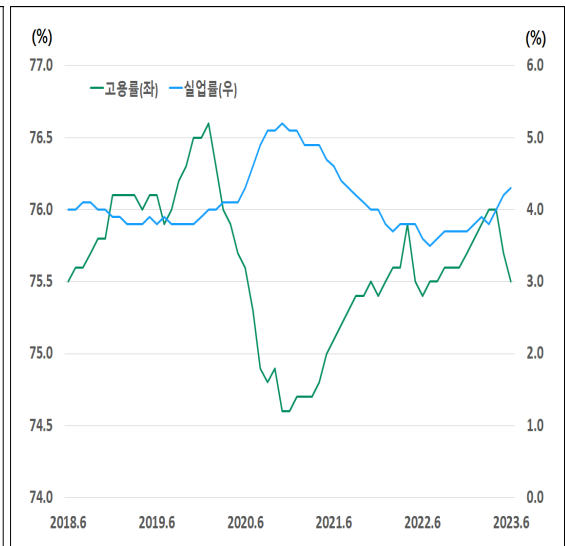
- 주택과 주거서비스²⁾, 식품과 비알콜음료 가격 상승이 CPI 상승의 주요인이었으며 2022년 10월 이후 하락세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 2.0%를 여전히 상회
 - EU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³⁾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EU산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통관비용 등 수입비용 상승이 식품 가격 상승 주도
 - 2023년 9월 CPI 상승률은 6.7%이며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라 하락세 지속 예상
- 고용률⁴⁾은 2020년 12월 74.6%를 기록한 이후 2023년 6월 75.5%로 증가, 동기간 실업률은 5.3%에서 4.3%로 하락했으며 기업의 인력 수요보다 공급부족 상황
 - 고용률 상승은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에 기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요양자 증가, 브렉시트에 따른 EU 국적 외국인 취업 정체 등으로 노동인력 부족

<그림 3> CPI 상승률 분야별 기여도



자료 : ONS

<그림 4> 고용률과 실업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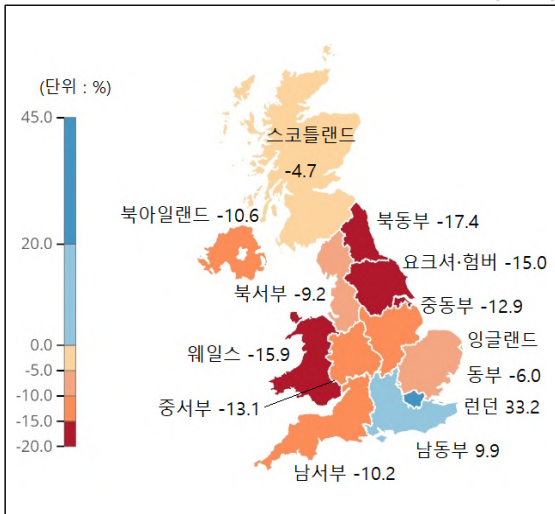


자료 : ONS

- 1) 영국 통계청(ONS)에서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89년 1월 이후 최고 수준
- 2) 주거서비스는 전기, 가스, 기타 연료 그리고 자가 주택자의 주거 비용 등 포함
- 3) 브렉시트 시행 전 EU 국가로부터 식료품의 약 70%를 수입해 왔으며, 브렉시트 이후 의존도가 감소했으나 2021년 기준 식료품의 약 60%를 EU 국가로부터 수입
- 4) 16~64세 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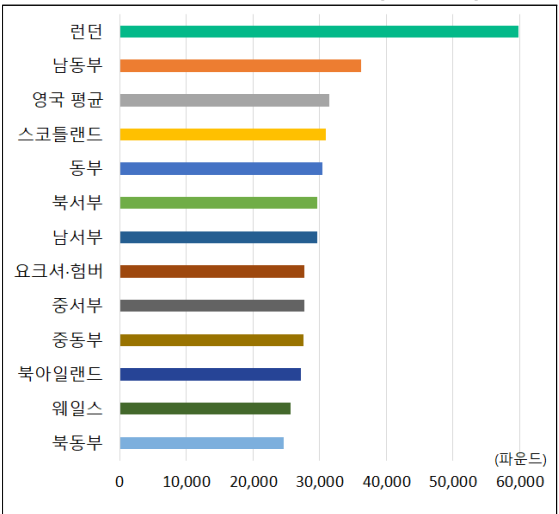
- 금융산업 중심의 성장과 런던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역간 경제와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2019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levelling up' 정책을 추진 중이며 프로젝트 경쟁공모 등을 통해 북서부지역에 가장 많은 재정투자 집행
- 과거 관광과 연관된 해안지역, 산업유산을 보유한 잉글랜드 북부 지역과 중부지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
-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만이 2021년 영국 전체 평균보다 높은 노동생산성과 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보였으며 가처분소득의 지역간 격차도 매우 큰 편
 -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2021년 노동생산성은 영국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각 33.2%, 9.9% 높지만 그 외 지역은 영국 평균을 하회
 -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2021년 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4,575 파운드로 런던의 41% 수준이며 런던과 다른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장기적으로 확대 추세
- 건강기대수명⁵⁾(2018~2020년 출생자 기준)은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이 북동부 지역보다 남여 모두 약 6년 정도 길며, 세부 지역별로는 20년 내외 차이 발생
 - 남자는 중동부 지역 유틀란트 74.7세, 북서부 지역 블랙폴 53.5세로 21.2세 차이

<그림 5> 영국 평균 대비 지역별 노동생산성(21년)



자료 : ONS 자료 참고로 필자 재구성

<그림 6> 인당 지역내총생산(2021년)



자료 : ONS

5)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

II.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주요 내용

□ 영국 정부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evelling up' 정책 실현을 위해 'levelling up fund'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4대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 계획

- 'levelling up' 정책 4대 목표로 ① 민간부문 성장을 통한 생산성·임금·일자리 그리고 생활 수준 증진, ② 기회 확대와 공공서비스 향상, ③ 공동체 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 및 소속감 회복, ④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권한 이양 선정
-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은 생활 수준, R&D, 교통 인프라, 디지털 연결 분야에 초점
 -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향상, 연기금의 지역 프로젝트 투자 확대, 기업의 브라운·그린필드 투자⁶⁾ 증진, 높은 기술과 임금의 제조업분야 성장지원
 - 동남부 외 지역에 대한 R&D 공공투자 최소 40% 증가 등을 통해 장기적인 혁신 촉진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민간분야 투자 확대 등 추진
 - 서비스 향상, 단순한 요금, 통합 발권 등과 더불어 지역 공공 교통 연결성을 런던 수준으로 향상, 전국적으로 기가비트 광대역, 4G와 5G 커버리지 확대
-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은 교육, 기술, 건강과 웰빙에 중점
 - 초등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해 55개의 신규 교육 투자 지역과 무료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영국 국제 아카데미' 구축
 -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기술 향상 계획' 시범사업 추진,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9개의 신규 기술기관 설립,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In-Work Progression' 도입
 - 지역간 건강기대수명 격차를 좁히고 2035년까지 건강기대수명을 5년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최소 100개 이상의 '지역 진단 센터' 설립 등 추진
-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 주택, 범죄 분야에 집중
 - 지역의 경제구조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할 20개 도시 선정, 녹지대 확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대회 지원

6)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방식에 따라 브라운필드 투자와 그린필드 투자로 구분되며, 브라운필드 투자는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현지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나 시설을 인수하거나 합작하는 방식의 투자 형태이고, 그린필드 투자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투자 방식

- 자가주택 보유자 증가를 위해 주택 중소 건설기업에 대출을 제공해 주고 영국 정부의 지역재생 우선지역을 지원하는 ‘레벨링업 주택 건설 펀드’ 도입
 - 범죄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더 안전한 거리 펀드’ 조성, 불법 약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공급망 차단 등을 담은 ‘10년 약물 전략’ 수립
- 네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은 지자체 권한과 연관된 지역 리더십 분야에 중점
- 지역에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콘월, 더비셔 등에 새로운 ‘주 협상(County Deal)’ 실시, 기존 시장의 권한 강화, 권한 이양절차 간소화 추진
 - 기존 또는 잠재적인 신규 클러스터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지방과 중앙 정부, 지역의 교육연구기관과 협력하는 파트너십 장려
- 영국 정부는 2021년 9월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를 지역균형발전·주택·지역사회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 표명
- 영국 정부는 ‘levelling up’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levelling up fund’, ‘towns fund’ 등과 같은 지역성장을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고 재정지원 추진

〈표 1〉 levelling up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펀드 현황

구분		총 펀드 금액	기간	주요 투자 분야
레벨링 업 펀드		48억 파운드	2021~2025년	지역 인프라
타운즈 펀드	타운 딜	36억 파운드	2019년~	도시 재생
	미래 도심지 펀드			
영국 지역사회 부흥 펀드		2.2억 파운드	2021~2022년	기술, 지역사회, 지역 비즈니스 지원
영국 번영공유 펀드		26억 파운드	2022~2025년	
지역사회 소유권 펀드		1.5억 파운드	2021~2025년	지역 자산 매입

자료 : DLUHC(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자료 등 참고로 필자 정리

7) 2021년 7월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보다 유연한 접근을 통해 지역 리더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새로운 지방분권 협상인 ‘New County Deal’을 할 것을 공식 발표, 교통·기술·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시장이 갖는 권한과 같은 권한을 대도시 이외 지역에 주고,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내용 등 포함

□ 레벨링 업 펀드는 영국 재무부, 지역균형발전·주택·지역사회부, 교통부가 공동 운영하며 지역의 교통 프로젝트, 지역재건, 문화·역사적 자산의 유지 등을 위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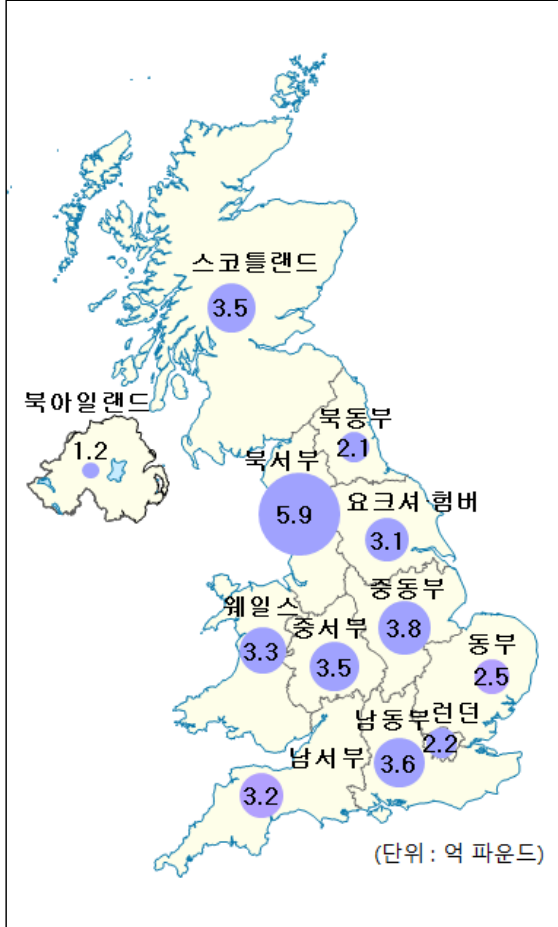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가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
- 레벨링 업 펀드를 통한 재정집행을 위한 경쟁공모방식의 1차와 2차 라운드⁸⁾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이며 투자 대상은 교통 프로젝트, 도심지 재생, 영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와 역사적 자산에 집중
 - 대중교통, 걷기와 자전거 인프라 향상, 버스 전용 노선, 다리 유지보수, 지방 도로망 개선,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에 투자
 - 브라운 필드⁹⁾ 매입 후 상업과 주거 용도로 재건, 낡은 건물 재건축, 주요 레저와 소매 지역 재생과 치안 증진, 공원과 같은 공공지역의 개선 등에 투자
 - 스포츠 시설·박물관·영화관·중요한 랜드마크·정원 등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공간 신규 구축과 개선, 호텔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문화적·역사적 장소 개조 등에 투자
- 현재 총 216개 프로젝트¹⁰⁾가 선정되어 38억 파운드를 재정지원하며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가장 큰 투자금액 수혜
 - 잉글랜드에 최초 40억 파운드, 웨일스 등 그 외 지역에 최소 8억 파운드 투자 계획
 -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은 5.9억 파운드(15.5%)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북아일랜드 지역이 1.2억 파운드(3.2%)로 가장 적은 금액 수혜
 - 선정된 프로젝트 수는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이 27개로 가장 많고 북동부 지역이 11개로 가장 적으며, 인당 펀드 투자액은 웨일스가 104파운드로 가장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런던이 24파운드로 가장 적은 금액 기록

8) 1차와 2차 라운드 결과는 각각 2021년 10월과 2023년 1월 발표, 3차 라운드는 2023년 11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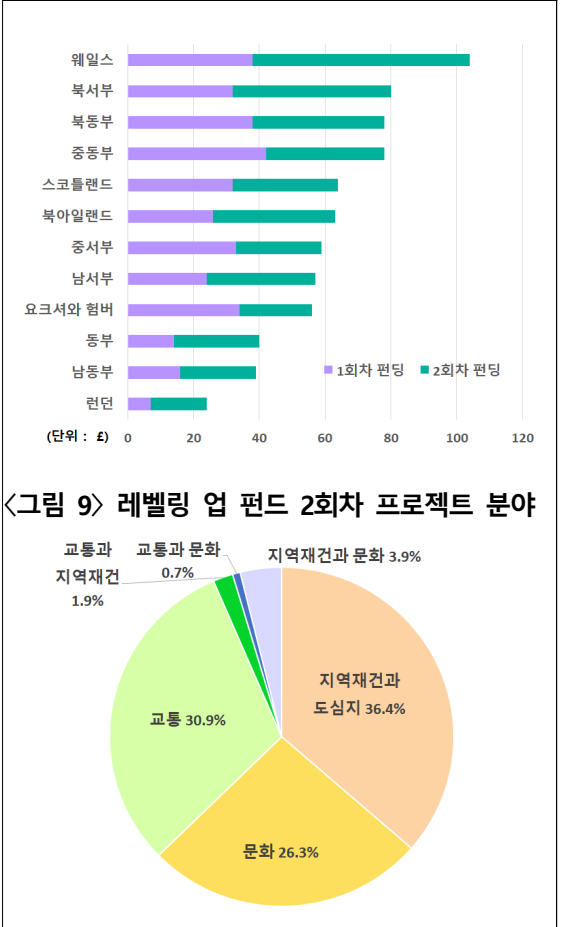
9) 산업구조가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재구조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 남아 있는 황폐하고 오염된 토지 또는 건물

10) 1차에 105개 프로젝트(17억 파운드), 2차에 111개 프로젝트(21억 파운드) 선정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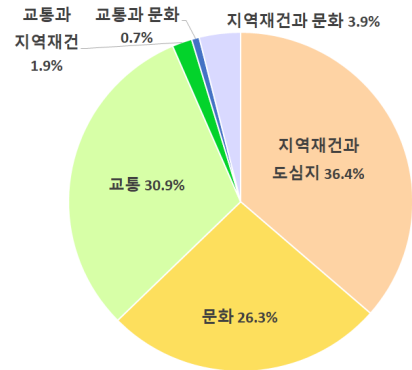
<그림 7> 지역별 레벨링 업 펀드 1·2차 투자금액 <그림 8> 지역별 인당 레벨링 업 펀드 배분액



자료 : DLUHC 데이터 참고로 필자 작성



<그림 9> 레벨링 업 펀드 2회차 프로젝트 분야



자료 : DLUHC

□ 타운즈 펀드(Towns Fund)¹¹⁾는 도시와 도심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19년 36억 파운드로 시작되었으며 ‘타운 딜’과 ‘미래 도심지 펀드’로 구성

- 타운 딜은 장기적인 경제·생산성 성장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경제적 재생을 위해 소득·기술·생산성, 브렉시트 영향 등을 기준으로 101개 타운 선정 및 23.5억 파운드 투자
 - 도심지 밀집도 증가, 문화적 자산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자산 강화, 기술·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간, 디지털 연결성 향상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
 -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20개 타운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블랙폴은 타운별 25백만 파운드 지원 한도 예외¹²⁾ 적용으로 39.5백만 파운드 지원

- 미래 도심지 펀드(Future High Streets Fund)는 미래에 적합하도록 도시 상업지구를 쇠신하고 재개발하기 위한 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72개 지역에 8.3억 파운드 출자
 - 상업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사용률이 낮고 지속적으로 공실인 소매지구를 주거 지구로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 지원
 - 북동부 선더랜드시와 남서부 스윈던시가 최대 지원액인 25백만 파운드 수혜

〈표 2〉 지역별 타운 딜 선정 현황

(단위 : 개)				
지역	최우선	중순위	후순위	총계
북서부	8	9	3	20
중동부	6	12	1	19
요크셔·햄버	8	4	4	16
중서부	7	7	1	15
남서부	2	5	2	9
남동부	2	5	1	8
북동부	4	3	0	7
동부	3	4	0	7
총계	40	49	12	101

자료 : 영국 감사원

〈표 3〉 미래 도심지 펀드 Top 10 배분지역

(단위 : 백만 파운드)		
도심지	지역	배분액
선더랜드	북동부	25
스윈던	남서부	25
비컨헤드	북서부	24.6
탐워스	중서부	21.7
키더민스터	중서부	20.5
비숍 오글랜드	북동부	19.9
블랙프리아스	런던	17.9
스트렛포드	북서부	17.6
그림즈비	요크셔·햄버	17.3
올리치	런던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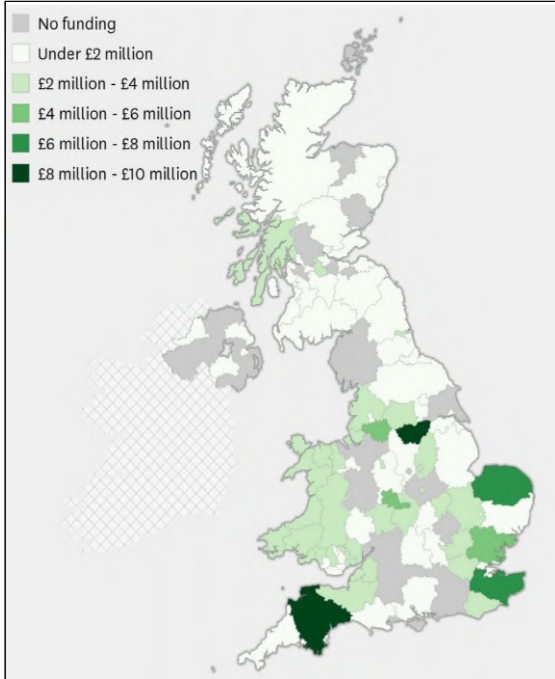
자료 : DLUHC

11) 타운즈 펀드는 잉글랜드 지역에만 투자

12) 타운 딜은 예외적으로 타운별 50백만 파운드까지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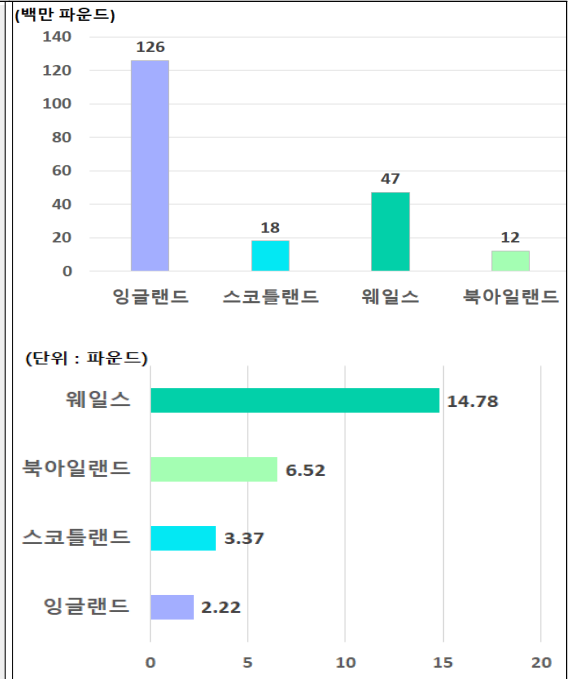
- 영국 지역사회 부흥 펀드(UK Community Renewal Fund)는 영국 번영공유펀드(UK Shared Prosperity Fund) 도입 지원을 위해 2021~2022년간 2.2억 파운드 투자
 - 동 펀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EU 구조펀드¹³⁾(EU Structural Fund)를 대체할 영국 번영공유펀드 도입 전 유연한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펀드로서 시범 프로그램 가동
 - 투자 우선분야는 기술, 지역 비즈니스, 지역사회, 고용지원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 촉진, 지식공유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잠재력 개발, 그린 프로젝트의 기회 평가 등 포함
 - 웨일스 지역의 인당 투자금액은 14.8파운드로 영국 평균액의 약 5배를 기록했으며 총 투자금액상으로는 잉글랜드가 61.8%, 웨일스 23.1% 등 비중 차이 - 잉글랜드에 1억 2천 6백만 파운드(225개 프로젝트)가 투자된 반면 북아일랜드 지역은 1천 2백만 파운드(31개 프로젝트) 투자에 그침

<그림 10> UCRF 투자 선정 지역(2021년 11월)



자료 : DLUHC

<그림 11> UCRF 지역투자액(上)과 인당 투자액(下)



자료 : McGarry 컨설팅

13) 영국이 투자받은 EU 구조펀드는 유럽 지역개발 펀드, 유럽 사회적 펀드, 유럽 농촌 개발을 위한 농업 펀드, 유럽 해운·어업펀드로 구성되며, 2020년말 영국에 대한 신규 펀딩이 종료되면서 EU 구조펀드를 대체할 영국 번영공유펀드는 대부분 유럽지역개발 펀드와 유럽 사회적 펀드를 대체

□ 영국 번영공유 펀드(UK Shared Prosperity Fund)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건강을 비롯한 삶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22~2025년간 26억 파운드 지원

- 우선 투자 분야로 지역사회와 장소, 지역 비즈니스 지원, 인적자본과 기술을 선정했으며 동 펀드로 재정지원시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영향 등도 고려 필요
 -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는 물리적·문화적·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활동에 투자하여 사회적 관계망 강화, 회복가능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추구
 - 지역 비즈니스 투자는 네트워킹 기회와 협력 촉진,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지원, 인적자본·기술 투자는 지역수요에 맞춘 고용지원으로 비경제활동 감소 등 목표
- 레벨링 업 펀드나 타운즈 펀드와 달리 경쟁공모가 아닌 지역 인구 규모, 생산성·가구 소득·기술 관련 수요기반 인덱스를 이용한 공식 등에 따라 지역별 투자액 배분
 - 2022년 10월 첫 투자가 개시되었으며 2022~2023년 초기 4억 파운드, 2023~2024년 7억 파운드, 2024~2025년 15억 파운드로 투자액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
 - 투자기간 동안 지역별로 최소 1백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며 그레이터 런던 지방 정부가 가장 큰 금액인 1억 8천 5백만 파운드를 투자 받음

□ 지역사회 소유권 펀드(Community Ownership Fund)는 소멸 위기¹⁴⁾에 처한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2021~2025년간 1.5억 파운드 재정지원

-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자산(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획득, 지역자산과 연관된 주식이나 지적자산 매입, 지역자산의 현대화,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 프로젝트 등에 투자
 -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유형의 자산에 2백만 파운드까지 지원 신청 가능하며 커뮤니티 센터, 스포츠와 레저 시설, 문화적·역사적 건물 등이 선정됨
- 재정지원된 49.3백만 파운드(195개 프로젝트) 중 잉글랜드가 35백만 파운드 (7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순
 - 아가일 커뮤니티 트러스트(Argyle Community Trust)¹⁵⁾가 신청한 브릭필즈 스포츠와 커뮤니티 허브 프로젝트가 105만 파운드의 가장 큰 금액 수혜

14) 폐쇄, 매각, 현 소유자의 방치, 장기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에너지 비효율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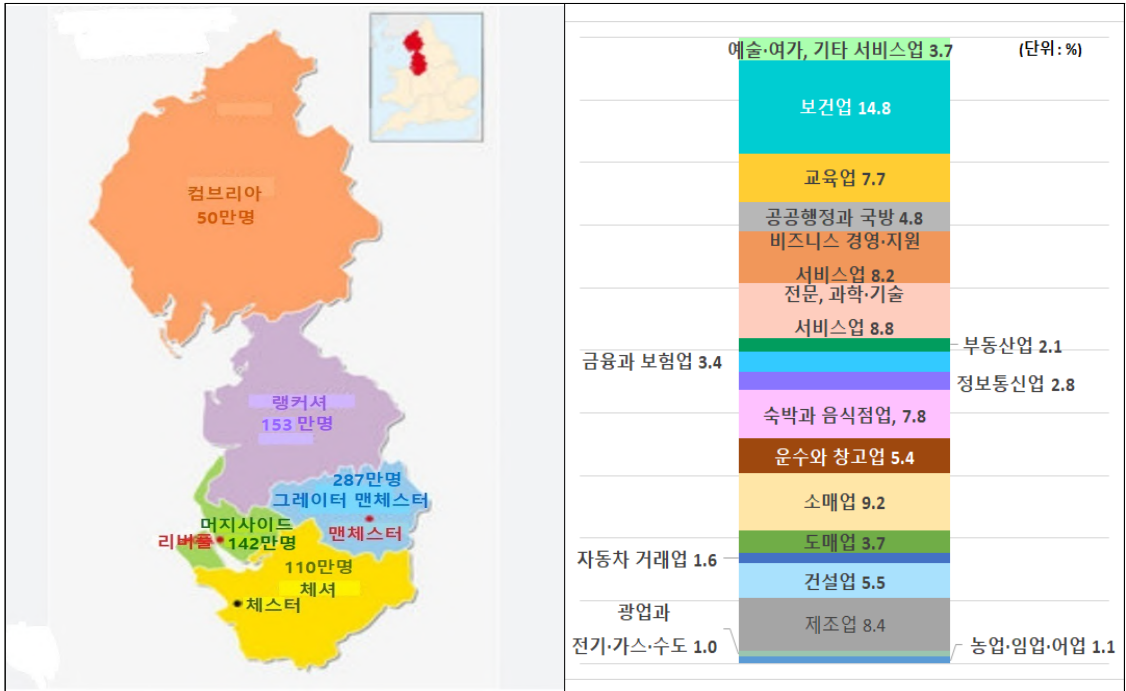
15) 잉글랜드 플리머스 아가일 풋볼 클럽의 공식 자선단체

Ⅲ.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 균형발전전략

1. 북서부 지역 개황

- 그레이터 맨체스터주 등 5개 주로 구성되며 2021년 약 742만명이 거주하며 '보건업' 분야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 및 '금융과 보험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
-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은 주요 도시로 맨체스터시와 리버풀시가 있으며 컴브리아주, 랭커셔주, 그레이터 맨체스터주, 머지사이드주, 체셔주의 5개 주로 구성
- '보건업' 분야가 일자리 측면에서 2021년 14.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금융과 보험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광업은 21% 감소
- 그레이터 맨체스터주 인구가 287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랭커셔, 머지사이드 등의 순이며 2043년 그레이터 맨체스터주 인구는 약 310만명에 달할 전망

〈그림 12〉 북서부 지역별 인구현황(2021년) 〈그림 13〉 북서부 지역 산업별 고용비중(2021년)



자료 : ONS 자료 등 참고로 필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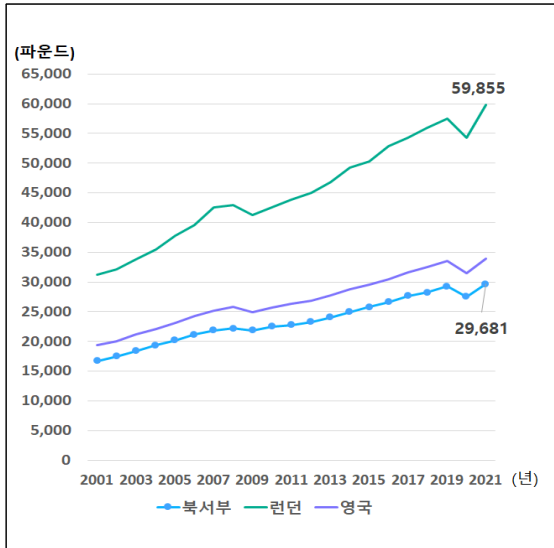
2. 균형발전전략 추진 배경

□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과 런던과의 경제·사회적 차이가 20세기 초부터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코로나 19 이후 지역 격차는 소폭 확대

- 북서부 지역의 인당 지역총생산은 2021년 29,681 파운드¹⁶⁾로 런던 59,855 파운드의 50%, 인당 가처분 소득은 18,864 파운드로 31,094 파운드에 달하는 런던의 60% 수준
 - 2001~2021년간 북서부 지역의 인당 지역총생산은 1.78배 증가한 반면 동기간 런던은 1.92배 증가하며 두 지역간 격차 확대
 - 북서부 지역의 인당 가처분 소득은 2001년 11,079 파운드로 런던의 70% 수준이었으나 2021년 60% 수준으로 감소

-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는 북서부 지역이 열악하여 기대수명이 낮고 흡연·비만율도 높은 편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인프라 개선 필요
 - 북서부 지역의 건강 기대수명은 남자 61.5세, 여자 62.4세로 북동부, 스코틀랜드, 요크셔·험버에 이어 낮아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편

〈그림 14〉 북서부 인당 국내총생산 비교



자료 : ONS

〈표 4〉 지역별 건강 기대수명

구분	(단위 : 세)	
	남자	여자
남동부	65.5	65.9
남서부	64.7	65.5
동부	64.6	65.0
런던	63.8	65.0
중동부	62.0	61.8
중서부	61.9	62.6
북아일랜드	61.5	62.7
웨일스	61.5	62.4
북서부	61.5	62.4
요크셔·험버	61.1	62.1
스코틀랜드	60.9	61.8
북동부	59.1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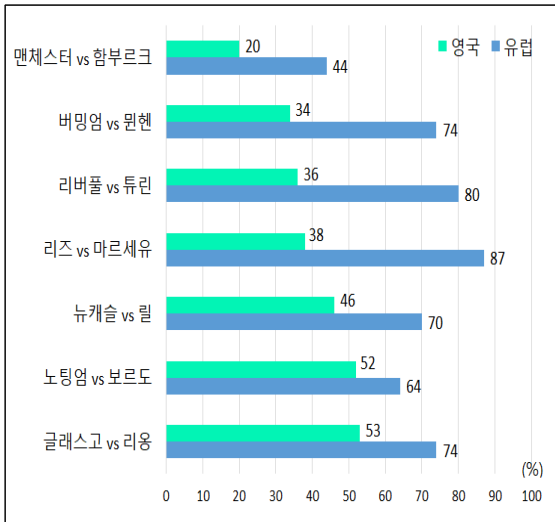
자료 : ONS

16) 맨체스터시가 51,330 파운드로 가장 크고, 머지사이드주의 세프턴시가 19,418 파운드로 가장 적은 편

□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은 낙후된 교통시스템으로 주요 도시의 성장이 제한적인 상태이며 영국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부응해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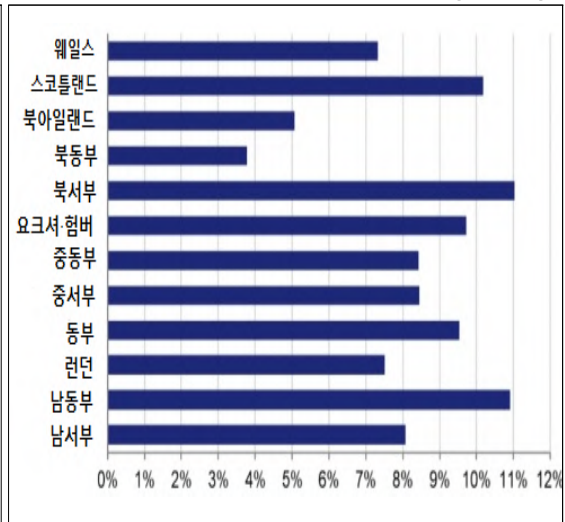
- 2022년 유럽과 영국 주요 도시들의 대중교통 연결성을 비교했을 때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 도시의 연결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중요
 - 북서부 지역 항구도시인 독일 함부르크의 대중교통 연결성은 44%인 반면 영국 맨체스터는 20%를, 이탈리아 튜린은 80%인 반면 영국 리버풀은 36% 기록
 - 북서부 지역 도시간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시 노동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집적의 경제 강화 가능
- 리버풀 도시 광역권은 2040년, 西체셔·체스터는 2045년,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2038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산업 분야 등에서 CO₂ 감축 추진
 - 영국의 주요한 제조업·화학¹⁷⁾ 생산 지역으로 연 6백만톤 이상의 CO₂ 배출
 - 2021년 영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각각 1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자전거 타기, 걷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그림 15〉 영국 vs 유럽 도시 대중교통 연결성



자료 : DfT

〈그림 16〉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2021년)



주 : 최종 소비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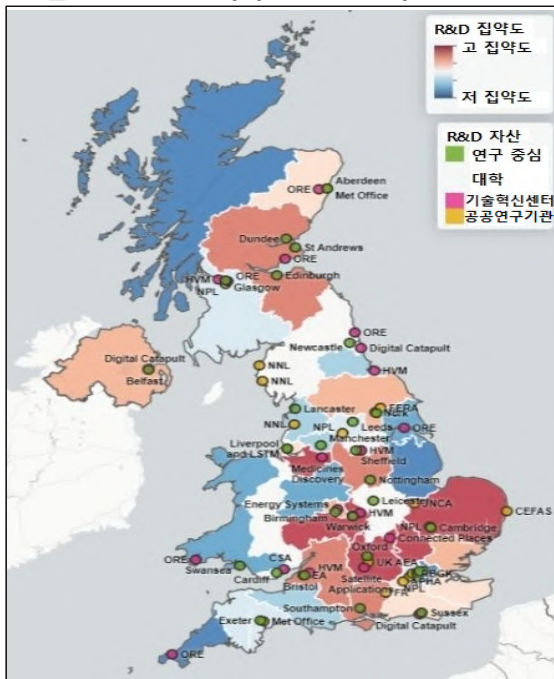
자료 : DESNZ

17) 영국 북서부 지역은 면공업 중심이었던 맨체스터를 비롯하여 영국 산업혁명의 요람이었던 지역

□ 영국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R&D 집약도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교육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북서부 지역은 동 계획을 활용해 지역발전 기회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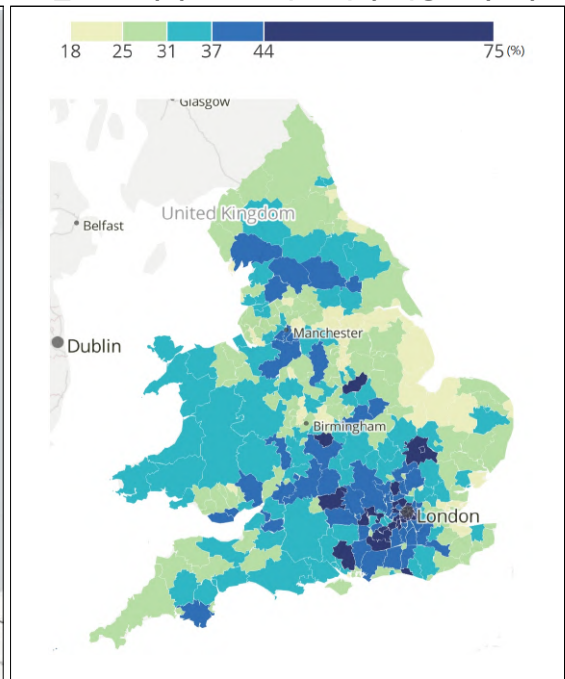
- R&D 지출의 54%가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및 동부 지역에 집중된 상황으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2024-2025년까지 R&D 지출의 최소 55%를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이외 지역의 산업 R&D 프로그램 등에 투자할 계획
 - 북서부 지역에서 2019년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의 적용 등을 지원한 'Made Smarter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가능
- 잉글랜드에서 2021년 전문대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비율은 런던이 46.7% (330만명)로 가장 높고 동남부 지역 35.8%(270만명)와도 차이가 큰 편
 - 북서부 지역 맨체스터는 37.6%로 동남부 지역보다 고학력 비율이 소폭 높은 편이나 블랙풀은 22.5%로 낮아 지역내에서도 교육 격차가 큰 편

<그림 17> 지역별 R&D 집약도



주 : R&D 집약도는 국내 R&D 지출/GDP
 자료 : BEIS, DSIT

<그림 18> 지역별 전문대 준학사 이상 인구 비율



자료 : ONS

3. 북서부지역 주요 균형발전 프로젝트

㉠ 리버풀 도시 광역권 교통 프로젝트

□ 비컨헤드에서 리버풀 시티 그리고 북쪽 세프턴의 해안 회랑을 연결하는 지역에 대해 레벨링업 펀드를 통해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 건강·웰빙 증진 도모

- 리버풀 시티에서 세프턴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교통 체증 감소, 지역간 연결성 증진으로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비즈니스 생산성 증가와 방문객 증가와 소비촉진 등을 통한 지역의 경제성장 추구
- 지역주민들의 자전거 타기와 걷기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₂ 감소와 대기질 개선

□ '비컨헤드 중앙 관문', '세인트 조지 관문', '해안 회랑' 세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도로 신규 건설과 확장, 교차로 개선, 보행자길과 자전거길 확충 등 추진

- 비컨헤드의 머지 강가 공간의 구조적 재생을 위한 '비컨헤드 2040 비전'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워털에 위치한 '비컨헤드 중앙 관문' 사업 추진
 - 아가일 거리를 개조하여 도심지로 연결되는 신규 보행자길과 자전거길 조성, 리버풀로 가는 버스와 자동차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킹스웨이 요금소 현대화, 전략적으로 브라운필드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
- 리버풀시 문화 중심지인 '세이트 조지 관문' 지역에서 낡은 건물에 둘러쌓여 있는 혼잡한 도로의 개선 등 실시
 - 2019년 도심지 고가도로 철거 후 통합적인 재건축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 시설 업그레이드와 통제된 교차로 개발 등을 통해 도로 공간 개발 우선 추진
 - 도심지에 주요 상업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세 개의 신규 보행자·자전거길로 대중교통 환승 개선과 해안 회랑 연결, 로프웍스의 공공 공간 개선 등 실시
- 세프턴에 위치한 '해안 회랑' 프로젝트는 주요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 등 계획

- 브라이들 도로(A5038) 확장, 리버풀 항구와 고속도로 교차로인 스위치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더닝스브리지 도로(A5036)에서 애틀랜틱 파크로의 좌회전 차선 건설 등

□ 동 프로젝트의 총 투자 비용은 38.5백만 파운드로 예상되며 지역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2024년 완공 예정

- ‘비컨헤드 중앙 관문’ 프로젝트에 22.8백만 파운드, ‘세인트 조지 관문’과 ‘해안 회랑’ 프로젝트에 각각 13.4백만 파운드와 2.3백만 파운드 투자 계획
- 세 개의 프로젝트에 비컨헤드 민간 토지 소유자 그룹, 필그룹¹⁸⁾, 활동적인 이동(걷기·자전거) 포럼, 로프웍스 상공회의소, 리버풀 BID¹⁹⁾ 기업,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 잉글랜드 고속도로 사업 관련 주요 기업 등이 참여

<그림 19>

레벨링업 펀드 우선 투자 지역



자료 : 리버풀 도시 광역권 연합 기구 자료 참고로 필자 재작성

18) 맨체스터에 기반을 둔 영국의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기업

19) 리버풀내 상업활동촉진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의 납세자들을 위해 일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② 볼튼의 신규 의료시설 개발

□ 차세대 헬스케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로열 볼튼 병원의 최신식 신규 전문 의료 교육 시설 건설에 레벨링업 펀드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2024년 완공 계획

-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며 헬스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에게 병원에서 실습할 기회 확대, 헬스케어 분야의 경력 개발, 기존 직원의 기술 향상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병원에 신규 시설 개발 추진
- 전문 의료 교육센터는 학습공간, 카페, 직원과 서비스 공간과 250개의 추가적인 주차 공간으로 구성되며 완공되면 연간 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견습생 배출 및 지역경제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24년 이후 연간 3,700명의 학생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볼튼 대학, 볼튼 의회, 볼튼 NHS²⁰⁾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가 파트너십을 형성한 협력 프로젝트로 2021년 레벨링업 펀드로부터 2천만 파운드를 지원받았으며 지역에서 최소 6백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

<그림 20> 볼튼 의과대학 건물



자료 : 볼튼 대학

<그림 21> 볼튼 의과대학 시설



20) National Health Service, 1948년에 설립된 영국 국가보건의료 서비스

③ 그레이터 맨체스터 혁신 엑셀러레이터

□ 영국 정부가 혁신 생태계 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2022년 발표한 세 개의 신규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범지역 중 하나로 그레이터 맨체스터 선정

- 높은 잠재력을 가진 혁신 클러스터 성장 촉진을 위해 그레이터 맨체스터, 글래스고, 중서부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선정시 R&D 강점, 견실한 민간과 공공 혁신 거버넌스, 강한 지역 리더쉽 등 고려

□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첨단 재료, 인공지능, 생명과학, 탄소중립을 포함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DEVOTE 프로그램' 등 10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의료 분야에서 'DEVOTE²¹⁾ 프로그램'과 '그레이터 맨체스터 첨단 진단 엑셀러레이터', 디지털 분야에서 '맨체스터 혁신 전환 허브'와 '디지털 혁신 센터' 프로젝트 지원
 - DEVOTE 프로그램은 게놈 실험 기술 개발과 검증 프로그램으로 생체 표지자에 중점을 두며 맨체스터 대학 주도로 지역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
- 탄소중립 분야에서 '그레이터 맨체스터 전기-화학 수소 클러스터', '미래 주택 프로젝트', '수소 기술을 위한 증강현실 애드테크' 등 4개 프로젝트에 투자
 - '수소 기술을 위한 증강현실 애드테크'는 제조업, 건설업, 교통과 에너지 분야의 수소기술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기술 플랫폼 지원
- 첨단 재료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재료 중개연구센터 시범' 프로젝트, 창조 산업 분야에서는 '몰입형 기술 혁신 허브' 프로젝트 추진
 - '몰입형 기술 혁신 허브' 프로젝트는 기업의 메타버스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교육, 건강, 건조환경, 제조 분야에서의 몰입형 기술 적용 연구

□ '혁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범지역인 세 개 지역에 총 1억 파운드가 각 3.3천만 파운드씩 균등 배분되며 민·관·연 파트너십이 프로젝트 등 계획 수립

- 민간, 학계, 지역정부 파트너십인 '혁신 그레이터 맨체스터 이사회'는 영국 혁신청, 과학·혁신·기술부와 함께 프로젝트 선정과 혁신 플랜 공동 작업

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chnology for Time Critical Genomic Testing

④ 워링턴 발전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워링턴의 '지역 전략'에 반영된 4가지 장기 비전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중앙 정부의 타운즈 펀드 목적에도 부응한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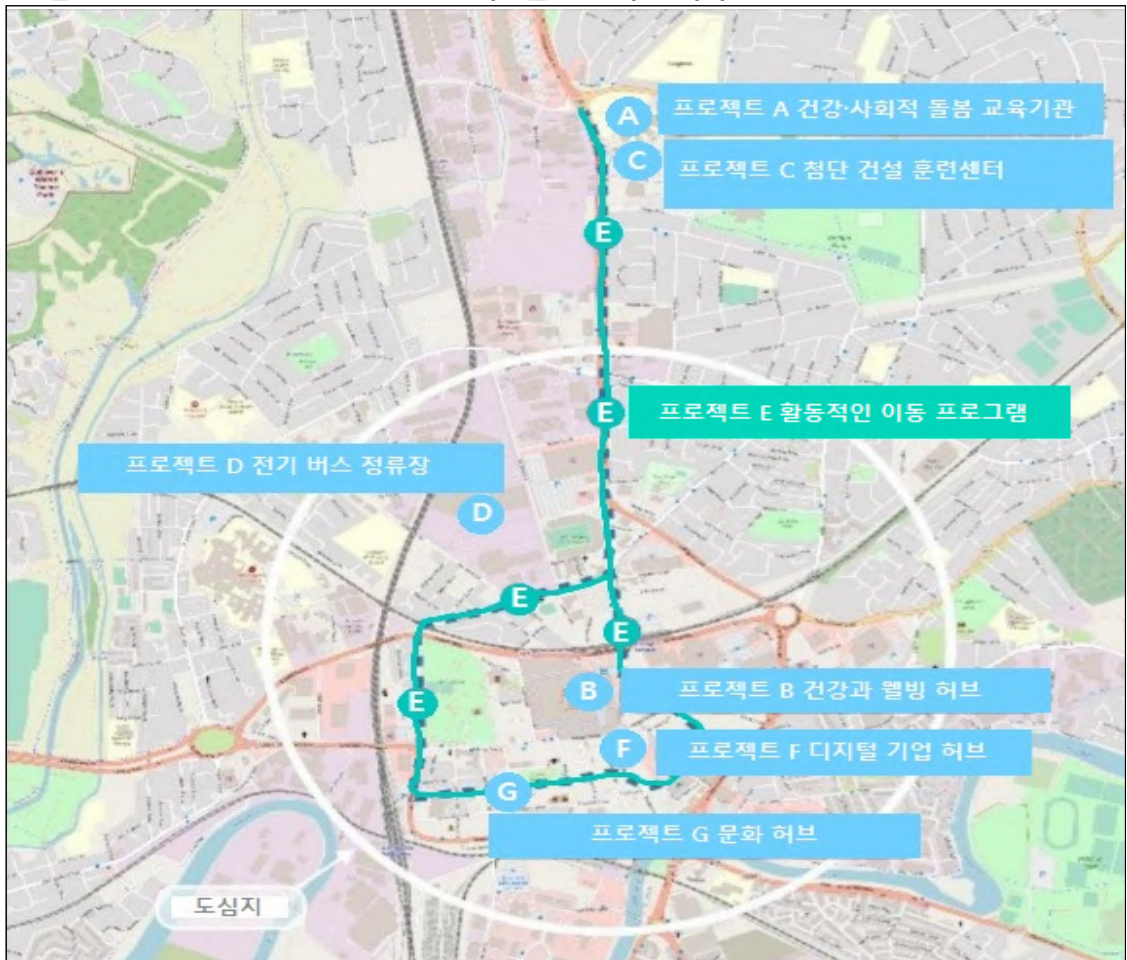
- 워링턴 '지역 전략'은 ①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 ② 모든 지역주민이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부터 혜택, ③ 안전하고 강한 지역사회와 취약점 보호 ④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이고 활기찬 타운을 장기 비전으로 선정
- 워링턴의 타운 딜 프로젝트는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문객과 기업에 매력적인 도심지', '기술·교육·고용기회 개선', '디지털·문화 생태계 강화',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한 건강과 웰빙 향상'의 네 가지 목표 선정

□ '디지털 기업 허브', '첨단 건설 훈련센터', '통합적인 활동적 이동(걷기·자전거) 프로그램' 등 총 7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2020~2023년까지 추진 계획

- '디지털 기업 허브'는 3D 프린팅, 증강현실과 같은 디지털·혁신적 기술 지원, 빈 상업공간을 '건강과 사회복지 허브'로 개발하여 편리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도심에 있는 낡은 건물을 디지털 허브로 변환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제공, 조기사망 감소와 낮은 결근률 등 건강한 노동 인력 기대
- '첨단 건설 훈련센터'는 지속가능한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인력 재교육 실시, '건강과 사회적 돌봄 아카데미'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인력 양성 - 주택건설·토목공사 등과 같은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으로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건설 인프라 지원, 체셔 대학 등과 협력하여 간호사 등 전문교육 수행
- '전기버스 정류장' 프로젝트는 브라운필드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위한 새로운 정류장을 만들고 기존 정류장 자리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부족 완화 - 신규 전기버스 정류장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과 통합되어 건설
- '활동적인 이동 프로그램'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재계획된 문화 허브'는 피라미드 센터를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환 - 자전거 유지보수교육, 자전거 재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전거 허브 구축 등 시행

- 워링턴 타운 딜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 등을 통해 타운 딜 프로젝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2020년 타운 딜 펀드 22.5백만 파운드 승인
- 워링턴 타운 딜 위원회는 공공·민간 분야의 주요 기관 대표 30명으로 구성되며 하위조직인 '교육·기술·고용, 주택·인프라, 건강·사회복지, 예술·문화·디지털' 4개 그룹은 프로젝트 계획시 기술자문과 실사 등 수행
- 정부에 제안했던 프로젝트별 금액은 '활동적인 이동 프로그램'에 6.7백만 파운드, '재계획된 문화 허브'에 6백만 파운드 등의 순으로 소요 예상

<그림 22> 제안된 프로젝트 위치



자료 : 워링턴 의회 자료 참고로 필자 재작성

⑤ 랭커셔주 번영 프로젝트

□ 블랙풀은 지역사회 수요를 더 잘 반영한 교육과 고용에 대한 프로젝트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영국 지역사회 부흥 펀드를 통해 4개 프로젝트에 77.8만 파운드 투자

- 유연한 투자분야와 혁신적인 시범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블랙풀 청년 허브²²⁾', '장소 기반 혁신 촉진 시범 사업', '취업 준비', '문화 중심 재생을 위한 디지털 박물관과 사료관의 역할'의 4개 프로젝트가 자금유치 성공
- 블랙풀은 영국 정부가 정의한 경제회복 지수상 상위 100개의 우선 지원지역 중 하나로 교육과 고용에 초점을 둔 '블랙풀 청년 허브' 사업에 가장 큰 금액 투자
 - '블랙풀 청년 허브' 사업에 45.3만 파운드, 이어 '장소 기반 혁신 촉진 시범 사업'에 18.4만 파운드, '취업 준비'에 12.8만 파운드 등 배분
 - '블랙풀 청년 허브' 프로젝트에 블랙풀 FC 커뮤니티 트러스트(Blackpool FC Community Trust²³⁾), 블랙풀과 필드 칼리지 등 다양한 지역 파트너들 참여

□ 랭커셔주는 일자리 증가와 기회 확대, 지역에 대한 소속감 강화 등을 위해 영국 번영공유 펀드를 통해 '핵심²⁴⁾'분야와 'Multiply' 프로그램에 5.7천만 파운드 투자

- 랭커셔주는 크게 두 가지 분야인 성인의 수리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Multiply' 프로그램과 '핵심'분야를 축으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프로젝트 수행
 - 프레스턴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연료 빈곤 감소, 스포츠 활동 증가를 위한 녹지대 향상, 디지털 확대, 도심지 이벤트 프로그램 등에 투자 계획
 - 블랙 번 위드 다윈은 블랙번 도심지 종합계획 추진, 로선데일은 경영 자문 장소 구축, 하이드번은 예술·문화 프로그램, 리블 벨리는 교육과 고속도로 등 지원
- 랭커셔 전역은 2022~2025년간 '핵심'분야에 49.4백만 파운드, 'Multiply'에 7.5백만 파운드를 지원받으나 이전 EU 구조 펀드가 지원한 금액보다는 적은 편
 - 블랙번 위드 다윈이 가장 많은 약 6.8백만 파운드를 지원받았으며 랭커셔주 5.9백만 파운드, 블랙풀 5.9백만 파운드, 프레스턴 5.2백만 파운드 등의 순

22) '블랙풀 청년 허브'는 16~24세 청년의 구직을 지원하는 신규 시설

23) 블랙풀 FC(Football Club)의 공식 자선단체

24) 지역사회와 장소, 지역 비즈니스, 인적자본과 기술 지원

⑥ 역사적 자산의 재생 프로젝트

□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지역에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건물의 보존,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장소로의 재탄생 등에 지역사회 소유권 펀드를 통해 투자

- 컴브리아주 록시 컬렉티브²⁵⁾의 '록시의 미래' 프로젝트에 3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1937년에 문을 연 록시 건물(현재 영화관·박물관) 신규 시설 설치 등 지원
- 1874년에 건설된 그레이터 맨체스터주 빅토리아 하우스는 지역사회 소유권 펀드로부터 55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동 건물의 주요한 서비스 기능 유지 등에 사용
 - 빅토리아 하우스는 2013년부터 복싱장과 개인 개발 센터로 사용되어 지역사회에 피트니스와 웰빙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한 젊은층을 지원
 - 최근 파손상태로 강제 이전에 직면했으나 동 펀드 지원으로 역사적인 건물을 수리하고 원래의 위치와 건물 본연의 특징 보존
- 체셔주의 450년된 레이번 숙박시설은 1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인테리어를 새로하고 임대 예정이며 랭커셔주의 클레이톤 커뮤니티 센터에 18.5만 파운드 투자로 새로운 아마추어 복싱 클럽 장소로 사용 계획

〈그림 23〉 빅토리아 하우스 전경



자료 : Yell Business

〈그림 24〉 레이번 숙박시설



자료 : BBC

25) 록시 컬렉티브는 2021년 형성되었으며 지역의 지원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록시 건물 보존과 활성화 등을 위해 활동

IV. 시사점

□ 영국처럼 한국도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 격차가 큰 편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분석과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우선 투자 대상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도모

- 영국은 2021년 국내총생산 22,767억 파운드 중 런던과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이 37.9% 비중, 한국은 동년 국내총생산 2,076조원 중 수도권이 52.8% 비중을 차지하며 영국보다 더 많이 수도권에 경제력 집중
- 영국 2021년 총 인구 약 6,700만명 중 런던과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이 27.0%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2023년 9월 기준 총 인구 약 5,140만명 중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비중이 50.7%로 영국보다 인구 집중도가 더 심각한 상황
- 지역별 통계데이터 활용,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민간 지역개발 전문기관의 지역현장실사와 지방정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지역별 현황 정확히 분석
- 교통, 보건, 교육 인프라와 지역재생 등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 가능한 분야의 지역별 취약성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프로젝트 유형 등 파악

□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 교통 낙후지역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 추진 고려

-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고용유발 효과뿐 아니라 지역간 연결성 제고로 시장을 확대시키고 클러스터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
- 영국보다 한국의 도로보급률이 낮고 교통혼잡비용²⁶⁾도 증가하는 상태로 국내 교통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영국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
- 영국은 2022년 기준 도로보급률(국토계수당 도로밀도)이 3.28인 반면 한국은 1.59로 영국보다 낮은 수준인데, 한국이 영국보다 고속도로 보급률은 높지만 지방도로와 기타도로 보급률이 영국보다 낮기 때문

26)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차량운행비용(인건비, 연료소모비 등)과 시간가치비용의 합

- 2022년 기준 한국의 도로보급률은 8대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중 서울이 3.51, 제주도가 2.89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1.00, 경기도가 1.27로 가장 낮은 상태

○ 도로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로 연장 노선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도로 확장과 도로 현대화를 통해 산업생산의 파급효과 촉진 가능

〈표 5〉 영국 vs 한국 도로보급률(2022년)

구분		영국	한국
도로 연장(km)	고속도로	3,974	4,939
	국도	50,122	14,199
	지방 도로	121,003	18,316
	기타 도로	245,532	76,860
	전체 도로	420,631	114,314
인구수(천명)		67,509	51,628
국토 면적(km ²)		243,610	100,444
국토계수당 도로 밀도	고속도로	0.03	0.07
	국도	0.39	0.20
	지방 도로	0.94	0.25
	기타 도로	1.92	1.07
	전체 도로	3.28	1.59

주 1 : 한국,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2022년 기준, 북아일랜드는 2021년 기준

주 2 : 국토계수당 도로 밀도는 $km/\sqrt{\text{국토면적}(km^2)*\text{인구(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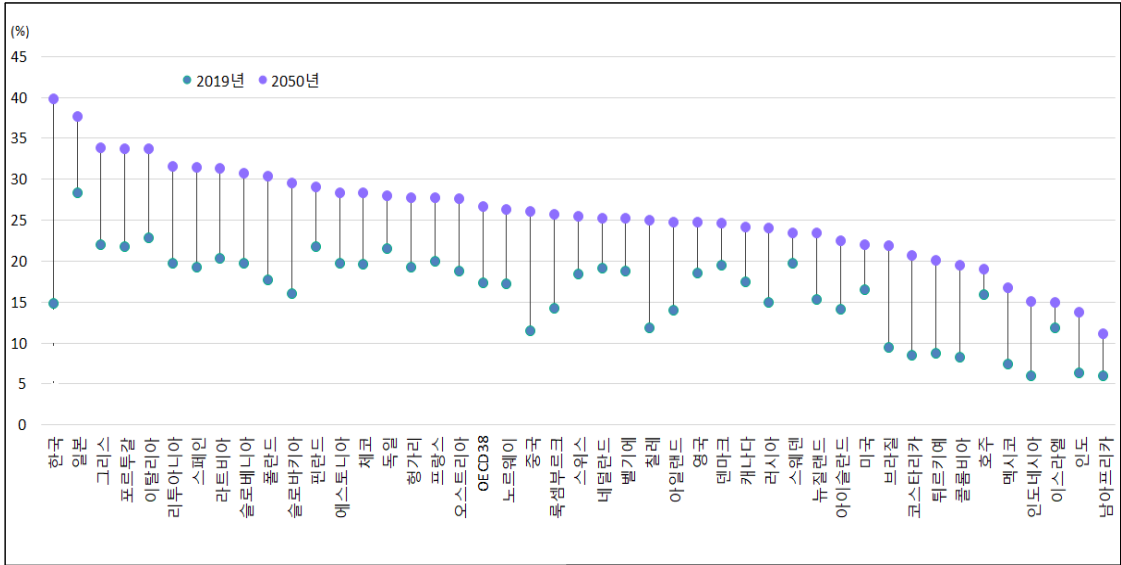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청, (영국) 교통부 등 데이터 기반으로 필자 계산

□ 영국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므로 지역 수요에 맞는 의료인프라 건설 확대와 생명공학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건강한 노동인력 증가 필요

○ 영국의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총 인구의 19%로 한국 17.5%보다 높지만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한국보다 완만하여, 2050년 영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4.8%인 반면 한국은 39.8%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2050년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큰 국가가 될 전망

<그림 25> 국가별 2019년 vs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 OECD

- 지역별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에 건강한 노동인력 공급 확대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가 필요
- 지역기반 바이오 클러스터의 개념 의료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유전자 기반 진단과 맞춤형 의약품 개발 촉진, 질병 사전 예방, 청년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 연장 가능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시 탄소중립과 웰빙 고려, 지역의 역사적 건물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강화
 - 지역별 인구규모에 따른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우선 지방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 공원 등 녹지대 조성 등 고려 및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클러스터 구축 추진
 - 도심지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 자산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재생하는 방안 마련

- 오래된 공장, 병원, 한옥 등을 개조하여 역사적 스토리를 가진 고급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고유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형성

□ 영국보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제조업 고도화 등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 **과 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첨단기술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상 추구**

-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창출 지원
 - 영국의 2021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 Index,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는 15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독일, 중국, 아일랜드에 이어 4위 기록
- 제조공장의 생산공정을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기술과 건물 설계시 가상 현실로 완공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술 등 첨단기술 습득 기회 확대로 생산성 개선
 - 적층제조²⁷⁾, 로봇과 자율시스템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제조업 첨단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도모

〈그림 26〉 AR을 사용한 건물 완공 모습



자료 : Studio 216

〈그림 27〉 AR을 활용한 산업 현장



자료 : Robotics Business Review

27) 3D 프린팅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하여 원자재, 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고밀도 열원을 이용해 형상을 3차원적으로 쌓아 올리는 제조기법

참고문헌

- Cheshire and Warringt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2022), "Building a Better Future Together: Supporting Recovery in Cheshire and Warrington"
-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 Communities, Department for Transport, HM Treasury(2022), "Levelling Up Fund Round 2: prospectus"
-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 Communities(2022), "UK Shared Prosperity Fund: prospectus"
- _____ (2022), "Guidance UKSPF allocations"
-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 Communities,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2023), "Community Ownership Fund: prospectus"
- _____ (2021), "UK Community Renewal Fund: prospectus 2021-2022"
- Harari Daniel, Matthew Ward(2022), "Levelling up: What are the Government's proposals?", House of Commons Library
- HM Treasury,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Department for Transport(2021), "Levelling Up Fund: Prospectus"
- House of Commons Library(2022), "The UK Shared Prosperity Fund"
- _____ (2021), "The Towns Fund"
- _____ (2019), "Future High Streets Fund"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2022), "Blackpool Council Community Renewal Fund Programme"
- Michael Gove(2022), "Devolution in England", UK Parliament
- Warrington&Co.(2022), "Warrington Annual Property Review 2022"